'남산의 부장들' 22일 개봉…동아일보 연재한 동명 베스트셀러 취재기 영화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연출자 우민호 감독과 주연배우 곽도원, 이성민, 이병헌, 이희준(왼쪽부터)이 15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0·26 그때 '남산의 부장'들에게 무슨 일이…

살인도 서슴지 않는 '2인자들' 세계
국보급 명배우들 불꽃튀는 연기대결
이병헌 "내 해석없이 시나리오 집중"
시사회 후 "웰메이드 정치물!" 호평

뜨거웠던 시대를 차갑게 관조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이지만 해석은 배제했고, 판단은 오롯이 관객의 몫이다. 우민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진일보한 시대극의 탄생을 알린다. 누아르의 향기를 품은 스파이영화의 매력까지 더했다.

15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첫 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은 22일 개봉작 '남산의 부장들'(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은 설 연휴를 겨냥한 한국영화 가운데 단연 강력한 화력을 갖췄다. 익히 알려진 실제 사건을 다루지만 창작의 영역에서 '역사는 스포일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관객의 평가가 남아 있지만, 이날 시사회 이후 '웰메이드 정치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권력과 권력의 충돌 그리고 암투

영화는 1979년 10월26일 대통령이 저격당한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앞선 40일 동안의 이야기다.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부장들이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을 향해 충성 경쟁을 벌이고, 그 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대통령에 의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려는 2인자들의 암투가 깔린다.

원작은 1990년 8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한 김충식 기자(현 가천대 부총장)의 취재기를 묶은 동명 베스트셀러다. 원작은 1961년 출범 이후 중앙정보부를 거친 여러 부장들을 통해 현대사를 다뤘지만, 영화는 그 중 가장 드라마틱한 10·26 사건에 집중한다. 우민호 감독은 "1997년 원작을 읽고 잘 몰랐던 근현대사를 접했다"며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사건에 깊게 파고들어 역사적인 사실을 해부한 김충식 작가의 기자정신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설명이 필요 없는 4색 연기 대결

이병헌과 이성민, 곽도원 그리고 이희준까지, 영화를 이끄는 이들은 명불허전의 연기를 통해 1979년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배우들의 팽팽한 연기 대결은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절대적인 힘이다. 특히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빗댄 김규평 역의 이병헌이 영화 말미 안가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는 3분 남짓의 롱테이크 장면은 압권이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이 누구보다 어울리는 위치에 올랐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병헌은 "창작물보다 실존인물을 연기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혹시라도 개인의 감정이 이입돼 연기로 표현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의 해석은 배제하고 시나리오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남산의 부장들'은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을 담아야 한다"는 우민호 감독의 기획 아래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로케를 통해 당대 중앙정보부에 얽힌 또 다른 현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 이는 곽도원이 연기한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이란 인물의 여정을 통해 구현된다. 당시 미국에서 활동한 실제 로비스트가 모델인 데보라 심 역의 김소진도 존재감을 발휘한다.

영화는 군부독재를 끝내려 대통령을 저격했지만 그 비극이 또 다른 군부독재를 낳았다는 메시지로 끝맺는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주는 울림이 묵직하다. 우민호 감독은 "당시의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지 영화로 끝나지 않고 극장을 나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올해도 다작배우 이성민, 바쁘다 바빠

'머니게임' 첫방 이어 '미스터 주' 개봉


영화 '미스터 주' 이성민

이성민이 상승한 몸값을 증명하듯 새해 시작과 함께 분주한 연기 활동에 나선다. '남산의 부장들'을 비롯한 세 편의 주연영화 및 드라마를 선보인다. 작품 공개 시기가 불가피하게 맞물리면서 누구보다 숨 가쁜 새해를 맞고 있다.

이성민은 22일 영화 '미스터 주:사라진 VIP'와 '남산의 부장들'을 동시에 내놓는다. 설 연휴를 겨냥한 세 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두 편이 주연작이다. 15일부터는 tvN 드라마 '머니게임'도 방송을 시작했다. 2018년 영화 '공작' 속 활약으로 러브콜이 집중된 결과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얻게 된 셈이다.

설에 두 편의 주연영화를 내놓는 이성민은 '우려'보다 '호기심'을 키우고 있다. 변화무쌍한 연기로 관객의 신뢰를 쌓아온 힘이 기대를 높이는 배경이다. 다행히 두 영화는 코미디와 시대를 담은 정통 정치물로서 장르의 차이가 뚜렷하다.

'미스터 주'는 웃음과 가족애를 버무린 코미디다.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국정원 엘리트 요원이 갑자기 동물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성민은 개, 햄스터, 앵무새는 물론 심지어 어항 속 열대어의 말까지 알아듣는 상황에 처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펼친다. 뭉클한 가족애도 있다.

색다른 코미디를 내놓는 이성민의 각오는 남다르다. 그는 "동물과 연기해야 했기에 변수가 많은 촬영현장이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관객층이 볼 만한 영화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방극장에서 먼저 공개한 '머니게임'도 시선을 붙잡는다. 이른바 '제2의 IMF' 위기를 다룬 경제 소재 드라마에서 이성민은 국가부도의 비극을 막으려는 금융위원회 고위직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해리 기자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3월 방송 30주년을 맞는다. DJ 배철수는 그 원동력으로 "청취자"를 꼽는다. 사진제공 | MBC

'배철수 음악캠프' BBC서 생방송 된다

30주년 맞아 2월17일 현지 진행
다큐멘터리 제작 등 이벤트 풍성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독특한 대표 멘트로 시청자의 귀를 사로잡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배캠)가 3월19일 30주년을 맞는다. 이에 2월17일 영국 B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관련 다큐멘터리도 제작하는 등 각종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대표적인 팝음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배캠'이 이처럼 장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역시 프로그램의 중심인 배철수의 힘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배철수의 부단한 노력이 첫 손에 꼽힌다. 오랫동안 그와 호흡을 맞춰온 김경옥 작가는 15일 "하루의 중심에 '배캠'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배철수는 라디오 방송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잇따르는 다양한 강의와 방송 섭외를 고사해왔다.

청취자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열린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연출자 김빛나 PD는 "누구와 만나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이 인상 깊다"며 "덕분에 폭 넓은 청취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취자가 방송마다 사연 문자를 보내고 있다.

팝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덕분에 해외 팝가수들의 내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다. 리한나, 아델, 레이디가가, 두아 리파 등 280여명(팀)의 내로라하는 팝가수들이 '배캠'의 스튜디오를 다녀갔다.

배철수는 2월 방영을 준비하는 MBC 토크쇼 '배철수 잼(JAM)'을 또 다른 무대로 삼는다. 사회 각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원석 PD는 배철수에 대해 "음악을 매개로 즉석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주역인 배철수 본인은 어떨까. 그는 30년 방송의 원동력은 바로 "청취자"라고 말한다. 평소 "듣는 사람이 있기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강조해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모 피의자 신분 경찰서 출석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묵묵부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52)가 1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건모는 이날 10시22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에 카키색 패딩을 입고 나타난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하 3층을 통해 출석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날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8일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2016년 8월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1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대리해 그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2007년 1월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인터뷰도 공개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성폭행 등 각종 의혹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또 지난달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경찰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확산 경고"


주진모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등 유포 행위에 경찰은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주진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